

대행 스님

이 마음공부는 천만금 주고도 살 수 없는 허공길의 공부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신도님들더러 내가 그러죠. "남편을 원망하지 마라. 너도 전에 그랬잖아. 지금 네가 그렇게 당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당할 때는 알지만, 과거로부터 당해서 지금 현실에 온 것은 너는 몰라. 너도 남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 그러니까 네 탓으로 돌려. 그러면 그것이 다 소멸돼." 그렇게 합니다. 사실이고요, 또 그게. 뭐, 그걸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의 도리를 빨리 배우려면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이유를 붙이면 빨리 일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일심으로 정진해야 하거든요. 소멸시키는 실천이거든요.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정진이다 뭐다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실천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붙이지도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여러분처럼 아주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길이 없는 길을 알기 때문이죠. 길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아까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물에 가면 주해신이 된다. 모든 걸 자유스럽게 대치해 나갈 수 있는 주해신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기독교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하듯이 말입니다.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실천이 중요하지. 그래서 천차만별의 마음은 '그 마음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겁니다. 부처라는 이름이 없는 것이 부처지, 부처라는 이름이 있는 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마음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자유스럽게 실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딪히면 아프고 또 좋고 나쁜 걸 다 빤히 아세요. 아시는 그대로 행하세요. 그대로 행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이 하는 거, 먹는 거, 말하는 거, 사는 거 모두 몽땅 그놈한테다 맡겨 놓고 사시면 얼마나 편리해요.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도 돼요. 정말이에요. 여북하면 부처님께서도 그러셨나요? "허허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형국인데, 배는 네 모습이고 배 속에 있는 생명들은 네 중생이니라. 그런데 그 배를 이끌고 가는 선장한테다 진짜로 믿고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선장이 다 알아서 가는 데까지 끌어다 줄 것을 그냥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면서 찾고 온통 난리를 치니까 그 배는 뒤집힐 수밖엔 없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마음공부는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허공길의 공부입니다. 우리가 저승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무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승의 이치를 다 알아서 대치를 해 나가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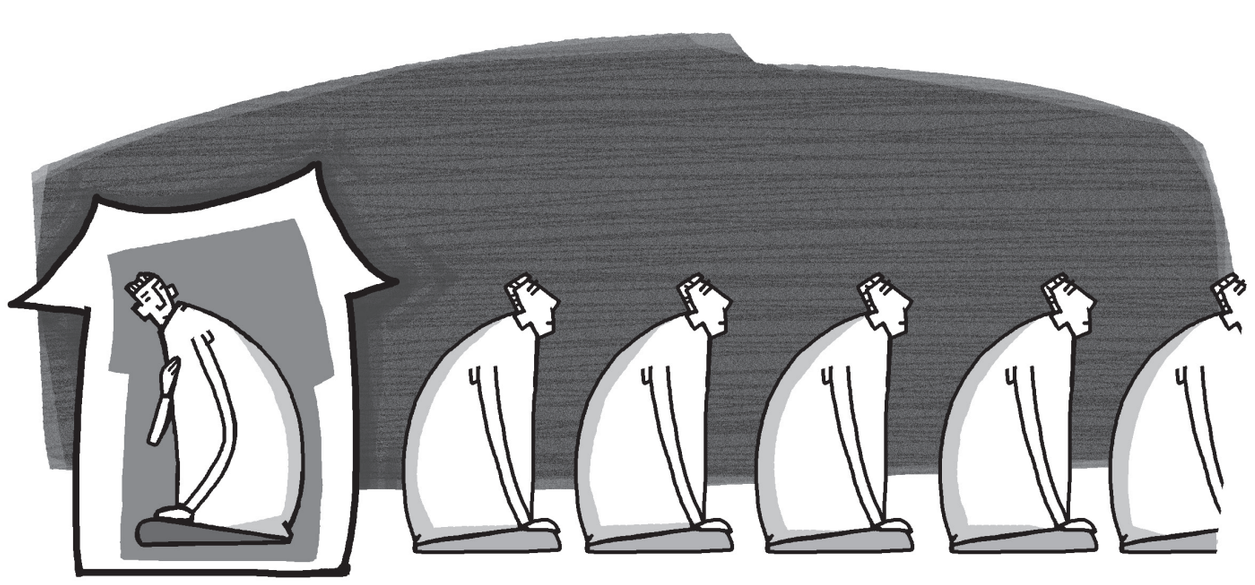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 여덟 달 만인가 일곱 달 만에 애를 낳았다는데 다 죽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또 몇 대 손이랍니다. 몇 대까지 손이 없었대요. 아,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이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급하니까 그냥 그렇게 지극하게 오직 그거 하나로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자기 앞에 떨어져야만 그렇게 야단법석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허허바다에 그냥 배 한 쪽 타고 가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살아나가는 게 그렇게 아슬아슬해요. 어느 때 차 사고가 날는지, 어느 때 떨어질는지, 어느 때 또 잘못될는지, 어느 때 식구가 어떻게 될는지 그것도 모르고요. 그냥 허허바다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 가슴이 얼마나…, 여러분이 들으면 얄팍한 말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개개인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불쌍하고 가엾은 게 아니에요. 벌레서부터 내려오면서 그 사는 걸 보면 기가 막히죠, 아주! 기가 막혀요, 그냥. 그래서 아마 화성에는 생명들이 다 없어졌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그냥 알아서 다 사라져서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사람 살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거예요. '아, 여기서도 살다가, 이 화성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살고 살고 부딪히고 부딪히고, 수백 수만 년 가다가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냥 화해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이 보살이 된다면, 왜 저, 은비까비 금비까비 이런 거 텔레비전에서 나오죠?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사람, 보살이 그렇게 행을 하거든요. 보살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거는 만화 영화에서만이 할 수 있고, 그거는 그저 그려 놓은 거고 텔레비전에서만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인간이에요.

나는 내 수중에 아무것도, 내 수중이 아니라 내 몸까지 없어요. 아주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버릴 것도 없는 걸 버렸다고 했구나.' 했어요. '버릴 것도 없는 걸 버렸다고 했구나.' 했다고요. 여러분이 함이 없이 살고 공해서 내가 따로 한 게 없구나. 내가 너무 많아서, 고정됨이 없이 그냥 항상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만나고 또 만나고, 하고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산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돈 벌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망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전부. 그렇게 없는 걸 알아야 내가 아주 자유스럽고, 어떠한 게, 뭐, 집안 가족이 다 죽는다고 이렇게 와도 그냥 뻔뻔하게 앉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신도님들 중에도 때로는 간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고 오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해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병원엘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도 됩니까?" 하거든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해." 이럴 수밖에요. "오직, 오직…." 하는 사람은 그냥 일어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당장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병원엘 가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차 보고 알게 된 사실이 '아, 모두가 대신해 줄 수는 없구나.' 하는 거죠. 다른 건 다 해 줘도 깨치는 거하고, 죽는 거, 아픈 거, 똥 누는 거, 잠자는 거, 먹는 거, 이거 여섯 가지는 아무리 해도 대신 못 해 준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누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주 마음 태평하게 버젓하게 그거를 그냥 대치해 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방방방방 뛰어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몸뚱이하고 모두 다 그냥 버리면 될 거를, 저렇게 어렵게 고생을 하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살면 얼마나 살고, 또 죽는 날까지 얼마나 남았다고 죽는 걸 겁내고 그러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여러 가지예요. 아주 여러 가지 말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날까지 여러분한테 말을 했어도 정작 할 말 못 한 것이 너무 많죠. 내가 해서 될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면서 점점 이렇게 돼야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같이해 주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같이해 주고, 길면 긴 대로 같이해 주고 짧으면 짧은 대로 같이해 줘라. 이것이 바로 모가 나지 않고 둥근 거니라." 때로 이렇게 자기 몸을 보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몸은 어디 아픈 걸 더 잘 알 거예요. 기운이 없다거나 입맛이 없다거나 또 어디가 아프다거나 이런 거는 더 잘 알죠. 딴 사람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알면 아는 대로 대치를 빨리빨리 해 나가야지, 이거는 대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거 어디가 어떻게 돼서 내 몸이 이런가. 병원에 가서 좀 검진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간을 오히려 더 늦추는 거예요. 빨리 해결을 할 것도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만약에 제가 어려서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 하면 벌써 죽었지 여직껏 살지 못해요.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어디가 아프기도 하겠죠. 그럼 '이렇게 아파서 돼? 아프게 만들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허허허…. 아이, 이 몸뚱이를 집을 삼고 사는 생명들이 전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죽고 나도 죽지 그럼 누가 안 죽을 수 있나요? 그런데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 해?" 이러거든요. 어때요? 죽는 거를 그렇게 대단스럽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요, 내일 죽든 오늘 죽든 이따가 죽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요, 부모를 두고서 자식이 먼저 죽는다거나, 또 부모가 자식들을 많이 두고서 먼저 죽더라도, 죽으면서 그 자식들을 괴롭힌다거나 이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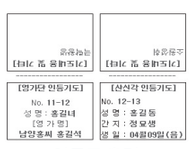
☞ A18면으로 계속

GmSoft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위패 출력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영도극불교연합회

증명대법주 도성큰스님 정각큰스님

고 문 | 혜주, 해정, 법공, 명준, 해문

회 장 | 호법

부 회 장 | 혜도, 해암, 혜진, 정오, 혜각

사무총장 | 원영정사

이 사 | 대범, 성연, 청우, 대수, 진명

감 사 | 해암, 혜진

기획실장 | 담화림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310-78 발원사 Tel. 051)405-2326